

가슴 찡한 제자사랑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지적장애학생입니다. 혹시 길을 잃거나 헤매고 있으면 학교로 꼭 연락주세요.”

광주전자공고 교사들은 최근 이 학교 2학년 지적장애학생인 윤도군을 포함한 11명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프로필이 담긴 전단지

를 파출소와 동사무소, 은행 등에 모군은 “처음엔 선생님이 집에 오시는 게 부끄러웠는데, 어머니와 정겹게 대화를 나누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본 뒤엔 학교 생활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광주유안초고 2학년인 김진욱군은 지난달 담임교사로부터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 유치원 시절

진욱이의 치료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선물의 의미를 전했다.

광주방림초교의 한 여교사는 어려운 가정 형편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반 아이에게 매달 3만원씩을 후원하고 있다. 이 교사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때까지 후원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광주유안초교에선 올해 졸업생 중 2학년 ‘스승의 사랑’이 특별 담긴 장학금을 받았다. 이 학교 문현교사 등 8명의 선생님이 실시된 반 돈을 모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자 두명에게 남몰래 30만원씩을 전달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제자사랑’에 감동을 받은 학부모들이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다. 학부모 윤경현씨는 “아내 없이 혼자 자식을 키우다 보니 선생님 얼굴도 한번 밟지 못했는데, 항상 엄마하고 같은 따뜻한 사람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장학금까지 주신 문현 선생님께 어떤 고마움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글을 남겼다.

아토피 치료제를 선물로 받은 박미숙씨도 “아들과 함께 선생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입학제를 목조에 가득 풀고 목욕을 했다”면서 “선생님의 세심한 사랑에 아들 진욱이의 표정도 한층 밝아졌다”며 거듭 고마워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자공고 교사들 지적장애 학생 프로필 전단 배부
무등중 교사들 음료수 들고 저소득 가정방문 위로
유안초 교사 아토피질환 앓는 학생에 치료제 선물
방림초·운남초 교사들 생활고 학생들 남몰래 후원

배부했다.

이 전단지에는 학생 11명의 사진과 특징, 연락처 등이 꼼꼼히 적혀 있었다.

교사들의 발로 뛰는 ‘제자사랑’을 접한 주민들은 “선생님이 이런 일도 직접 하시느냐, 너무 좋은 모습이다”며 직원의 하나 주민 공지 등을 통해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무등중 교사들은 지난날 초 직접 준비한 음료수와 과일 등을 들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가정을 찾아갔다.

부병중인 어머니와 동생 등 4명과 함께 단칸방에 사는 이 학교 정

부터 심한 아토피 질환을 앓아온 진욱군은 빨강계 부여오르는 피부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는가 하면, 교우 관계도 원만치 못했다.

진욱군의 어머니 박선미씨는 고민 끝에 담임교사에게 “진욱이가 아토피를 앓고 있으니,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얼마 뒤 진욱군은 “선생님이 얼마전에 선물을 주셨다”며 입학제 한통을 들고 왔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박씨는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전화를 했다.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담임교사는 “주변에서 아토피 치료에 좋다고 해서 구입했는데,

광주시의원 ‘성폭력범’ 지목 여성단체 간부 등에 배상판결

광주지법 “400만원 지급”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현지 광역의원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광주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배상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용규)는 7일 광주시의회 A의원이 광

주·전남 여성단체 간부와 회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의원에 대해 1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A의원을 성폭력범이라고 단정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제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자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월매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월매				경매사 010-5879-0005				주목/재개발				박정원이사 010-2611-5598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비고	소재지	면적	평	출입/층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비고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	비고							
광안동	대108,213,308	52억	29억 미트,사우나,인근	수원동	방자아파트	44	20/13	1억3천	9천1백	동성동	대40,2142	1억7천	6천	2층주택	대108,213,308	52억	29억 미트,사우나,인근	대108,213,308	52억	29억 미트,사우나,인근	대108,213,308	52억	29억 미트,사우나,인근	대108,213,308	52억	29억 미트,사우나,인근

‘오락실 뒷돈’ 총경 체포

2,700만원 받은 혐의... 검찰 수사 확대 촉각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검찰이 불법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총경 1명을 체포함에 따라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7일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경찰청 A총경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총경은 지난 2007년 4~6월 광주시 광산구에서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던 업주 박모(47)씨

로부터 9차례에 걸쳐 모두 2천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총경은 광주·전남지역 오락실 단속 업무를 맡은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총경이 오락실 단속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씨를 2개월간 추적해 검거한 뒤 지난 6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특히 박씨 조사 과정에서 A총경 외에도 ‘뒷돈’을 받은 경찰관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혐의를 캐내는 데 수

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박씨는 이미 지난 1월께 오락실 업주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광주서부경찰서 과장 B(50)씨에게도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B씨로부터 “A총경 외에 2명의 경정급 인사로부터 박씨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A총경과 박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호사랑 약손 출동 서비스

광주시 남구는 7일 구청 회의실에서 ‘호사랑 약손 출동 서비스 발대식’을 가졌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 안마를 해주는 이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위한 사업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노래방 여주인 피살사건

국민참여재판 회부

완도 주택 화재 30대 질식사

7일 오후 5시께 완도군 완도를 군내리 한 주택에서 불이나 이 집에 살고 있던 김씨(39)씨가 숨졌다.

불은 김씨가 거주하던 작은 방(10m²) 등 집 일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1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처치를 비관, 스스로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가족 절도단’ 수억원대 전선 훔쳐

담양경찰, 9명 검거

수억원대의 전선 절도를 ‘패밀리 비즈니스(집안 사업)’로 삼은 일가족 7명 등 절도범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담양경찰은 7일 전국의 공사장을 돌며 전선을 훔친 채모(45)씨 친·인척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채씨 등은 지난달 25일 새벽 2시께 담양군 한 전기회사에 침입해 전선 10t 가량(시가 5천만원)을 훔치는 등 최

근 6개월간 24차례에 걸쳐 수억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일당 9명 가운데 7명은 서로 친·인척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채씨 3형제와 아내 2명, 막내의 처남, 매형 등 7명은 업무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전선을 훔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형 트럭 2대 등을 이용해 전기회사 창고로 ‘씩씩’했으며 충북 청원에 있는 창고에서 전선 피복을 벗겨 구리로 팔아넘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내려방 여주인 피살사건

국민참여재판 회부

지난 2월 광주시 서구 관천동에서 발생한 ‘노래방 여주인 피살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됐다.

광주지법은 7일 “동거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모(51)씨에 대한 재판을 다음달 8일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배현태) 주재 하에 국민참여재판 방식으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틀에 소형 트럭 2대 등을 이용해 전기회사 창고로 ‘씩씩’했으며 충북 청원에 있는 창고에서 전선 피복을 벗겨 구리로 팔아넘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담양=노정훈기자 cjoh17@

6월 5일 OPEN

PREMIUM BUFFET
아이엘리시아

즉석 프리미엄 뷔페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 내장객 선착순 1,000분께 6월 12일(금) 기아타이거즈 VS 한화이글스 광주홈경기 입장권을 드립니다. ★

돌잔치, 세미나, 피로연
각종 모임 예약 접수중 (470석 완비)

경입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아이가 (5세~7세)	미취학아이가 (8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아이가 (5세~7세)	미취학아이가 (8세~7세)
LUNCH	11:30~15:00	20,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5,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30	25,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30	30,000원	18,000원 12,000원

* 금요일 DINNER는 주방요원으로 적용됩니다.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NAVER **다들** 아이엘리시아 검색

예약문의. 062) 671-1199

광주 서구 관천동 49-1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